

[1] 큰 잘못을 저지른 형제는 공동 식탁과 성당에서 동시에 제외된다. [2] 형제들 가운데 누구라도 그와 교제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다. [3] 그는 혼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회개의 슬픔 중에 항구하며, [4] 사도의 저 무서운 판결을 명심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"그런 자를 육체의 멸망에 내어주어, 주님의 날에 영혼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"라고 하셨다. [5] 아빠스가 그에게 적당하다고 정해진 분량과 시간에 혼자서 식사할 것이며, [6] 지나가는 누구에게도 강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음식에도 강복하지 못한다.